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전력투자 증가율이 매년 35%선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2007년 중에는 전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문의처 :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chinapark09@naver.com)

중남미지역

■ 중국 ZTE, 중남미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가 중남미시장에 진출했음. ZTE는 브라질 사오파울로 근교 바루에리(Barueri)라는 곳에 이동통신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를 최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차드(Richard Ye) ZTE 브라질 현지법인 사장은 브라질에 지은 현지 생산시설 및 멕시코, 쿠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지의 제휴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ZTE는 중국에서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체이며 2003년 매출액이 30억불에 달했음. 시장확대를 위해 이제는 중남미로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이 아닌 중국의 국영기업이 국제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할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짐.
- 리차드 사장에 의하면 ZTE는 현재까지 에콰도르, 쿠바로부터 광케이블 광통신장비 3천만불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중남미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장비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예를 들어 브라질 시장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30%인데 이는 스페인의 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음.
- ZTE가 중남미시장을 처음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지만, 금번 브라질 생산공장을 설치한 것은 중남미시장 확대에 있어 가장 구체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며 조만간 브라질 시장에 출품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 약 2개월 후에 준공되는 브라질 공장은 면적이 2천3백 평방미터이며, GSM-E780, GSM-A800, CDMA-C133, PCS-C218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할 예정임. 처음에는 브라질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한 후 차츰 중남미 전역으로 판매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함.

- 세계의 검은 굴뚝이자 진공청소기로 불리우는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산업 공동화현상을 심화시키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 제품을 홍수처럼 판매함으로써 한국 상품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추락시킨 가운데 이와 같은 이동통신장비 생산플랜트를 브라질에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중남미에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우리 업계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함.
- 특히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주종 수출품목 중의 하나가 이동통신 제품으로서 현재까지는 Motorola, Nokia, Ericsson 등 선진국 제품과 경쟁했지만 얼마 안 가서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한 중국 제품과도 부딪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문의처 : 파나마무역관 박강욱 kotral@psi.net.pa)